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공증인의 책무

송 정 호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I. 서언

고대로부터 인간사회에서 강조되어 온 기본 가치는 신뢰이다. 서양에서는 “Pacta Sunt Servanda.” 즉, “약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에 따라 합의된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 왔고, 동양에서는 국부나 군사력 보다 “민신(民信)”을 인간사회의 더 높은 가치로 강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도 “신의 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선언하고 있다. 약속을 존중하는 것은 언제 어떤 사회에서나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본이라 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현상은 디지털을 뛰어넘는 스마트 시대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소통의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금은 너와 나, 우리가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간의 감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생활에서도 이 같은 소통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소통이 중시되는 스마트시대의 법률문화는 사후의 분쟁 해결 보다는 사전의 법적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많은 소통과 거래에서 올 수 밖에 없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후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미래지향적 법률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상호간 신뢰라 할 것이다.

II. 공증의 중요성과 역할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간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핵심은 약속을 서로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신뢰가 배제된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법률생활에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아래에서 약속을 지키도록 담보해 주는 것이 바로 공증제도이다.

공증의 출발점은 사문서가 아니고, 공증인에 의한 공문서 작성이라는 국가사무에 있다. 그러기에 “공증인은 국가가 내세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방사법과 공증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공증인의 자질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공증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증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공증인과 공증업무 보조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한편 부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독과 징계 등 제재가 강화됨은 물론 새로이 제정되는 “공증인 윤리강령”을 공증인이 스스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공증인협회 차원에서도 공증인의 의무준수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도록 지도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III. 공증제도의 정비

공증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공증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공증인법이 1961년에 제정 이후 48년만인 2010년 2월 7일 큰 폭의 개정·시행을 통하여 공증제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먼저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던 공증 관련 법령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였고, 둘째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의 임명기준 강화, 정년제도 재도입과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새로이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넷째로 협회의 명칭을 “대한공증인협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강제

가입단체로 규정하였고, 다섯째 시각장애인의 공중촉탁시 참여인의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끝으로 공증서류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협회가 통합보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증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증을 이용하는 국민과 운영하는 공증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IV. 국제적 위상 제고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공증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몇 년 전부터 전임 협회장님을 위시한 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공증의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공증인협회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7월 18일부터 3일 간 일본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위원회 설치를 위한 회의에 본회의 김진환 수석부협회장과 안원모 총무이사가 참석한바 있다. 그 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위원회 설립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아시아 지역 공증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나아가 2010년 10월 3일부터 4일 간 모로코에서 개최된 국제공증인대회(UINL)에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장과 박광빈 국제이사가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공증인협회 가입이 승인되었고, 차후 우리나라도 UINL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는바, 앞으로 우리 협회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타국 공증제도의 장점을 배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공증인의 능동적 대처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공증제도의 정비에 따라 우리 공증인도 능동적으로 자세를 전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야만 공증이 예방 사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증인협회 차원에서 공증제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겠다. 그 노력의 하나로 협회는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하여 공증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2011년 2월 16일 구성하였다. 그 위원회는 협회의 김진환 수석부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와 법원·검찰·공증인협회 그리고 법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층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예정사항은 ① 공증제도 관련 법률 개정 촉진, ② 공정증서 집행력 범위 확장을 통한 부동산 분쟁예방 방안, ③ 전자공증제도 확대 방안, ④ 선서 인증의 실효성 제고와 기타 수수료 조정 등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법의 개정에 따라 성년후년인제도가 도입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개정 내용 중에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앞으로 이 제도가 공증 영역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또한 공증인 정년제의 실시에 따라 2012년 말 75세 이상인 200여 분의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공증업무에서 물러나게 되어있고, 계속 6개월 단위로 정년에 해당하는 공증인이 물러나게 되어있다. 그에 따라 그분들의 철학과 경험을 살리고 물려받아 공증 업무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또 공증사무소의 폐쇄와 그 사무소의 공증서류 처리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 있다. 공증서류의 보관 공간 확보와 그 비용 문제가 난제인바, 위의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VI. 공증인의 서비스 향상과 각오

공증인의 당면 과제 중에 서비스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공증인과 업무보조자가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에 충실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촉탁인을 공증인이 직접 면담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소통의 시대에 맞게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부실공증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다. 오로지 친절한 공증, 신뢰 받는 공증이 되어야 공증제도에 활로가 열리리라고 확신한다.

신뢰받는 공증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증인 스스로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향후 의무화된 공증인과 업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의 감독 외에 협회의 공증업무 지도를 강화 하는 한편 새로이 제정된 공증인 윤리강령이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동 강령에는 공증인의 사명과 품위유지, 신의 성실에 기한 업무처리 및 법령준수, 자질향상과 제도개선 등 공증업무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협회에서 발간하는 협회지도 공증의 사회적 역할과 신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대한공증협회지”라고 했던 제호를 “공증과 신뢰”로 바꿈과 동시에 디자인도 산뜻하게 바꾸었고 그 내용도 공증인에게 유익한 전문지식과 관련 상식을 폭 넓게 제공함으로써 믿음의 공증법학이라는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편집·제작하였다.

VII. 결 언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말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 한다면 공증제도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신뢰 받는 공증”, “존경받는 공증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분발하자고 촉구하는 바이다.